

제주자치도 정규리그 1위 '짚'

7~8일 홈에서 2020 KWBL 휠체어농구리그 2.5라운드 서울시청·춘천시체육회와 격돌... 챔피언결정전 예약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이하 제주)가 홈에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제주는 오는 7~8일 양일간 제주한라체육관에서 '2020 KWBL 휠체어농구리그 정규리그 2.5라운드'를 소화한다.

제주(6승 1패)는 정규리그 2~3위를 달리는 숙명의 라이벌 서울시청(5승 3패)과 신생팀 춘천시장애인체육회(4승 3패)와의 이번 주말 홈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게 된다.

올해 제주는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서울시청과 춘천시장애인체육회를 격파하는 등 전승가도를 달린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체육관 이용제한으로 두 달여 동안 공백기를 겪으며 지난 경기에서 수월 무궁화전자에 밀렸을 땀을 닦았다. 하지만 제주는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 승리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KWBL 휠체어농구리그는 전국 1부 리그 5개 팀이 약 3개월간 팀당

12경기씩 소화하는 정규리그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을 치르는 것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리그전 대회이다.

제주 팀은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뒤 내리 4연패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청에 석패를 하며 5연패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형종 단장은 "올해는 전력도 보강되고 챔피언 진출 조기 확정을 통해 수비 조직력 강화와 득점력 향상 등 공수전술을 가다듬어 챔피언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휠체어농구리그 양좌를 두고 격돌하는 챔피언전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정규리그 1, 2위팀이 3전2선승제로 우승컵의 주인을 결정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난 10월 17일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수원 무궁화전자의 경기에서 제주의 김동현(가운데)이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한국휠체어농구연맹

도남초 이주아 전국클라이밍대회 '금메달'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용마포공원 암벽등반장에서 열린 '제29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도남초등학교 6학년 이주아(사진)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주아는 여자초등 고학년부 리드전 예선전에서 4.84점으로 4위를 기록했지만, 결승에서는 높이 '23 손잡이

플러스(23개 손잡이를 잡고 전진동작에서 떨어짐)'로 예선 1위인 김윤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주아는 작년 제2회 포항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유스D(초4년~5년)에서 리드 3위, 제28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유스D 리드 4위, 제7회 엄홍길



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유스D 리드 3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제11회 고미영길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유스D(초6년~중1년) 리드 5위 등 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양의지·최형우 등 KBO 10월 MVP 후보

KBO는 2일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최우수선수(MVP) 후보 5명을 발표했다.

두산 베어스 투수 라울 알칸타라와 크리스 플렉센, NC 다이노스 타자 양의지와 kt wiz 타자 벨 로하스 주니어, KIA 타이거즈 타자 최형우가 MVP 경쟁을 벌인다.

알칸타라는 10월 한 달간 6경기서 전승을 거두며 승리 1위에 올랐다.

플렉센은 10월 리그 유일 0점대 평균자책점(0.85)을 기록하고 월간 42타점으로 각 부문 1위를 휩쓸었다. 또 5경기에서 4승 무패를 기록했다.

9월 MVP를 받은 양의지는 2달 연속 수상을 노린다. 양의지는 10월

25경기에서 10홈런으로 최형우와 공동 1위에 올랐다.

로하스는 10월 23경기에서 득점 1위(23득점), 홈루를 1위(0.480), 장타율 1위(0.788), 홈런 3위(9홈런), 타점 공동 2위(24타점) 등 대부분 타격 지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KIA 최고참 야수인 최형우는 10월 리그 최다 홈런(10홈런)과 타점(32타점)을 기록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손흥민, 이강인, 황의조.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지는 평가전에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손흥민·황의조·이강인 최전방 출격

벤투호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 핵심자원 총 출동 대표팀 1년만에 A매치... 멕시코·카타르와 평가전

'골잡이 듀오'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를 비롯해 한국 축구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발렌시아)이 1년 만에 해외 원정 경기에 나서는 벤투호의 최전방 공격을 책임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르기 힘들어지자 유럽 원정 평가전을 준비했고 오스트리아에서 멕시코, 카타르와 맞붙기로 했다.

벤투호는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멕시코와 비너 노이슈타트 슈타디온에서 대결하고, 17일 오후 10시 카타르와 BSHF 아레나에서 상대한다.

벤투호가 A매치를 치르는 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경기를 치른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 원정 평가전은 지난해 11월 19일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평가전을 치른 이후 1년 만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원정 평가전인 만큼 벤투 감독은 핵심 자원을 대부분 호출했다.

공격진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인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단팍' 황의조와 독일 분데스리가로 활동 무대를 바꾼 '황소' 황희찬(라이프치히)을 불러들였다. '유망주' 이강인도 호출했다.

스피드가 뛰어난 측면 공격자인 엄원상(광주)과 이동준(부산)도 부름을 받았다. 엄원상은 벤투호 첫 발탁이다.

중원에는 전북 현대의 부지런한 미드필더 손준호(전북)가 뽑힌 가운

데 황인범(루빈 카잔),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재성(휴스턴 킷), 남태희(알 사드) 등 기존대표팀 자원이 이름을 올렸다.

수비진은 김민재(베이징 궈안)와 박지수(광저우 헝다) 등 2명의 중국과 선수가 뽑혔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원정 이후 카타르에서 치러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도 출전해야 해서 벤투호에 승선할 수 없었다.

젊은 수비수 원두재(울산), 정태욱(대구), 윤종규(서울)는 김학범호 대신 벤투호에 뽑힌 게 눈에 띈다. 정태욱과 윤종규는 벤투호에 처음 뽑혔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한 왼쪽 풀백 김진수도 대표팀에 합류했다.

골키퍼는 조현우(울산), 구성운(대구), 이창근(상주)이 발탁됐다.

대표팀은 8일 소집돼 출국할 예정이다. 다만 그날 FA컵 결승 2차전을 치르는 전북과 울산 소속 선수들은 본진과 따로 출국한다.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 김학범호 이집트 친선대회 출전

김학범호가 이승우(신트트라위던), 백승호(다름슈타트)를 비롯해 송민규(포항), 조규성(전북), 오세훈(상주) 등 유럽파와 국내파를 아우르는 최상의 멤버로 이집트 3개국 친선대회에 출격한다.

김학범 감독은 2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이집트 3개국 친선대회에 나설 25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김학

범호는 A매치 기간(11월 9~17일)을 활용해 이집트에서 열리는 3개국 친선대회를 통해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에 원정 경기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이번 이집트 친선대회에는 한국, 이집트, 브라질이 참가한다.

김학범호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3시 이집트와 카이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1차전을 치르고, 14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브라질과 맞붙는다.

오랜만에 실전 무대에 나서는 김학범 감독은 해외파와 국내파 '핵심 자원'들을 대부분 소집했다.

유럽에서 뛰는 이승우, 백승호를 비롯해 김현우(NK이스트라), 이재익(엔트워프), 김경민(비토리아),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천성훈(아우크스부르크)과 일본에서 활약하는 골키퍼 안준수(세레소 오사카) 등 해외파 7명이 부름을 받았다. 연합뉴스

축
수 상
대통령표창

진경임
(前 한국자유총연맹제주지회 여성회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과학대학교 제1기 원우회
회장 김수남 외 원우일동

축
수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강금숙

제25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에서 (분야: 섬유, 작품명: 오방색나들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일동
(영길·영덕·영일·영효)

축
수 상
대통령표창

유재호
(오라초 18회)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라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강효국의 회원일동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려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